

구천동 어사길 대표 명소 자리매김

황인홍 무주군수, 어사길 복원·홍보 공로로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황인홍 무주군수가 19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무주군이 '구천동어사길 복원 및 안내·외에 홍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한 것으로,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이승찬 소장(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19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구천동 어사길(4.9km)은 구천동 33경 중 제16경인 인월담부터 제32경인 백련사까지 이어지는 계곡 길로, 초입부터 인월담까지의 '쉼나들길', 인월담~구월담까지의 '청령길', 구월담~안

사업비 10억여 원을 투입해 목교 2개소를 비롯한 데크로드와 계단, 목재데크, 안내판 등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오솔길과 돌계단 등을 그대로 살리고 인위적 구조물은 최소화시켜 '옛길 복원'의 의미를 살렸다.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로 관광시장이 한껏 위축됐던 지난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으로 선정돼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으며 "2021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으로도 선정돼 사계절 안심 트래킹 코스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

덕유산국립공원 이승찬 소장은 "성공적인 복원사업 추진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어사길 홍보에 나서주신 덕에 어사길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각광받는 명소가 될 수 있었다"며 "무주를 대표하고 무주가 자랑하는 어사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원 측에서도 보존과 관리,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3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전 주민 1인당 10만원

진안군은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작년 6월 20만원, 12월 10만원에 이어 세 번째 지급이다.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은 지난 8월 25억원의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진안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됐다.

통과된 예산은 코로나19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를 절감하고, 보통교부세 추가 내시에 따라 부대비용을 포함해 마련됐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오는 11월 30일 기준으로 진안군에 주소지를 둔 자와 진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결혼이민자로 체류자를 진안군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마감 시점인 12월 8일로 계획하고 있다.

지급 방법은 기존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군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펼쳐 신청과 동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사용기간은 2022년 2월 말까지 3개월간으로 이번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은 온라인, 상품권, 공공요금 등을 제외하고 진안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등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때문에 단기간에 군민 모두의 고른 소비지출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을 하게 됐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무엇보다도 방역을 우선하고 적극적인 소비 활동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여성센터' 입주식 거행

무주군이 여성센터(무주읍 교동 1길 13)의 탄생을 알렸다. 19일 여성일자리 지원센터와 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보호센터,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해 마쳐 앞으로 활약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여성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주식에는 황인홍 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무주군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등 80여 명이 자리해 떡 커팅과 시설 관람의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여성센터는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배움터이자 더 나은 무주를 위한 화합의 장으로 활용이 될 것"이라며 "인재를 키워 각 분야 리더로 양성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쓸모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

란다"고 전했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인 박찬주 의원은 "무주군 여성들의 사회활동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센터가 이제 주인을 만난만큼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취업 및 상담, 학습, 소통, 나눔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것"이라며 "입주단체와 기관들의 조화와 더불어 그 안에서 만들어질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조직개혁' 박차

정관개정 등 12개 과제 완료... 조직개혁 활동 점검·이행 계획 등 논의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조직 개혁'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19일 오용환 이사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조직 개혁 TF'가 도출한 기틀을 바로 세우기, 미래 비전 그리기 등 4개 부문 23개 과제 중에 '불합리한 정관 개정'과 '독립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일하는 조직 구성' 등 12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완료 사항은 직제 개편과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특히 '정관, 직제 규정, 위임 전결 규정' 등 30개 규정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며 재단의 '시스템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진행 중인 11개 과제는 재단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신사업 개발',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으로 추진 상황에 대해 매일 평가하고 내년 2월 내로 종료할 계

획이다.

특히, 태권도진흥재단은 '조직 개혁 TF'에 이어 대대적인 인사 부문 혁신을 위해 '인사 개혁 TF'를 조만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직 개혁 TF'가 조직 전반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라면 '인사 개혁 TF'는 재단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나 승진, 채용, 성과 평가 등 인사 전반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재단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변화시킬 조직 개혁 활동이 진행 중이다"며 "인사 개혁까지 마치게 되면 태권도진흥재단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 혁신이 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며 태권도진흥재단 개혁과 혁신을 기반으로 국가 태권도 활성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청결한 공중화장실 정비 착수

무주군이 오는 11월부터 각 읍면에 마련된 공중화장실에 대한 본격 보수 작업을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무주다운 청정이미지와 맞게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정비를 총력을 쏟는다. 무주의 관내의 경우 공중화장실 44개소, 간이화장실 92개소 총 136개소에 이른다.

이에 군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결한 부분은 깨끗하게 청소를 실시하며,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공사를 마쳐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 청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공중화장실의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

12일 동안 해당 부서 및 읍·면 담당자들이 총 출동해 지극히 교환대를 비롯해 비상벨 설치여부, 불법촬영 점검 등을 집중 살핀다.

이와 관련 군은 버스터미널을 비롯한 예체문화회관, 군청, 반디랜드 등 부속시설로 관리되는 공중화장실 전 수사의 경우 담당부서가 말고 주유소와 체육시설, 유원지 등 읍면에 설치돼 운영중인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는 읍·면사무소가 맡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예로부터 화장실 청결여부에 따라 가정과 자치단체가 평가받아 왔다"며 "무주구천동을 비롯해 적상산, 반디랜드 등 관광지원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공중화장실 청결문제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가을 꽃 가득한 장수누리파크서 힐링하세요"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에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지쳐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백일홍, 일일초, 국화꽃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곳이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누리파크에 백일홍, 일일초, 국화꽃 등 1만8,000주를

식재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했으며, 가족자전거, 산책로 등을 가꿔 공원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고 있다. 다양한 꽃이 만발한 중앙정원을 지나 노란 국화꽃이 펼쳐진 산책로를 거닐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풍년 환경에 마련된 가족자전거를 타며 가족이나 연인이 함께 가을을 즐길 수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치매 어르신 치유활동 프로그램 호응

무주군이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유활동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치매 치료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치매안심센터는 19일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을소풍' 치매 어르신 치유활동 프로그램을 4시간 동안 운영,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가을소풍' 치유활동 프로그램은 평소 외부활동이 적은 치매 어르신들이 자연과 계절을 느끼며 직접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다.

이날 가을소풍 치유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30여명의 어르신들은 힐링체험과 만들기체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인지능력 향상에 큰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외부 체험활동을 통한 신체·인지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들 어르신들은 체험농장을 천천히 거닐며 주변의 계곡, 동물과 곤충 등을 감상했으며, 만들기 체험으로 치매에 좋은 견과류를 활용한 오미자 견과류 양갱과 아보카도 샌드위치 등을 직접 만들면서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임산물 생산 현장방문 목소리 청취

진안군은 임산물 생산 현장 소리에 청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9일에는 정흥기 농촌경제국장과 최용주 산림과장이 진안읍과 부귀면 일원 호두 재배단지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방문하는 등 현장행정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1년 한파 및 이상저온 등 피해를 입은 임가를 직접 방문해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추진됐다.

현장방문에서 한파 피해로 호두 등 임산물의 생산량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응 방법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군은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내년도 산림소득사업에 적극 반영 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